



방주인(송원대), 이민(조선대), 조예주(목포대)씨 등 에스와티니 단원들이 체육문화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과 활짝 웃고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주·전남 청년들, 세계를 품다

YF 지구촌을 살리는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개인화 시대 넘어 공동체 선택한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25년간 1만여명 참여…국내 최장기 해외봉사 프로그램
교육·문화·보건 아우른 현장 중심 민간외교 활동 전개

K-콘텐츠가 세계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한국 청년들의 도전 정신 역시 각국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평범한 대학생들이다. 진로 준비로 바쁜 시기에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해 시선을 돌린 청년들이다.

이들이 선택한 굿뉴스코 해외봉사

단 활동은 올해로 25년째 운영되는 국내 대표 장기 해외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배출된 단원만 1만여 명에 달한다. 이들은 11개월간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교육, 생활환경, 진로 문제 등을 직접 마주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보다 질 높고 평등한 교육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무료 아카데미와 방과 후 교실 등을 열어 다양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졸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는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 기술 교육과 리더십 교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청년으로 삶의 터전을 잃거나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 복구 현장에 참여하는 구호 활동에도 나선다.

또한 6·25 참전 유공자, 파독 간호사와 광부, 그리고 그 후손들을 위문하며 우리 국민들의 감사한 마음을 대신 전하고 명예를 기리는 일도 기획하고 실행한다. 해외 각국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들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에도 함께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맑이 아닌 실천으로 책임감과 협력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문제 앞에서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마인드를 현지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은 지역사회

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현지 기관과 정부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됐다. 이에 각국 장관과 시장 등지도자들은 굿뉴스코 단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올해 귀국한 굿뉴스코 24기 단원들 가운데 총 29명의 청년들이 각국 교육부장관, 외교부 장관, 청소년부 장관, 노동부 장관 등으로부터 감사장과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이들은 교육, 보건, 환경 개선, 공공외교 등 다양한 분야

에서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성장경험나누는 귀국보고회

지난해 과연대 12월부터 올해 1월에 귀국한 24기 단원 100여 명은 각국에서 맛은 인연과 봉사활동의 성과를 안고 돌아왔다. 이들은 진로와 적성에 대해 방향을 설정하며 한층 성장한 모습이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많은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그 소중함을 깊이 느끼며 자신의 틀을 벗어나넓고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됐다.

단원들은 이러한 변화와 경험을 개인의 성취로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에 2월 한 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봉사활동 귀국보고회를 축제 형식으로 개최한다. 활동 사례를 엮은 수기집뿐 아니라 공연, 전시, 발표 등 다양한 형식으로 활동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보고회는 2월 8일 인천 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12개 주요 도시에서 열리며, 광주·전남 지역 공연은 오는 2월 11일 (수) 오후 7시, 광산구 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는 미국, 중국, 아프리카 문화댄스와 해외봉사 체험담과 단원들의 이야기를 뮤지컬 형식으로 펼쳐낸 '트루컬'이 무대에 오른다. 시민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왼쪽) 모잠비크 중등학교 감사장을 받은 양성신 단원(전남대). 아이들에게 위생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중간) 에스와티니 청년들과 함께 문화공연을 준비한 굿뉴스코 단원들. (오른쪽) 짐바브웨 교육부장관상을 받은 장우성 단원(송원대) 아이들과 태권도 수업 후 포옹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년들, 세계로 나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되길”

박옥수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을 한해 세계 각국에 파견돼 활동할 굿뉴스코 25기 단원들이 지난 1월 16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박옥수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는 해외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단원들과 앞으로 파견될 단원들을 향해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박옥수 설립자는 “해외봉사를 통해 청년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도전하며

시아와 삶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다”고 평가하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을 보유한 나라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 한 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넓은 시야와 도전 정신을 갖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자리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오늘날의 청년들은 제가 젊었을 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에

도전하고 있다”며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에서 두려움을 안고 시작했지만, 사람들과 직접 부딪히며 하나

둘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교류를 경험하며 삶을 즐기고 성장하게 된다”고 전했다.

또 해외봉사를 경험한 청년들이 세계를 향한 꿈과 관심을 갖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에 돌아와서도 늘 그나리를 생각하고 다시 가고 싶어 하며 교류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류가 청년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설립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환경과 평면을 넘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성장하길 바란다”는 소망도 전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 많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고, 세계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나라로 발전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굿뉴스코페스티벌

대학생 해외봉사활동 귀국 보고회



2026년 2월 11일(수) 19:00 광주문화체육센터

YouTube 굿뉴스코 선착순 입장